

한국청소년과 재외교포 청소년의 민족정체감조사 비교

The Acquisition of National Identity: A Comparison of In-country and Over-seas Korean Adolescents

이 순 형*
Yi, Soon H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measuring the acquisition of national identity of in-country and over-seas Korean adolescents.

The subjects consisted of 344 in-country and 89 overseas (total 433) adolescents, 14 to 26 years of age. Data were collected with the use of two questionnaires, The Cognition of National Characteristics(CNC) and The Measure of National Belongings(MNB). As statistical measures, F-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used.

The results are disclosed as follows:

1) The concept of national identity organized not only cognition of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in multi-dimension which is related each other, but also a sense of belonging. 2) Two measuring methods(CNC and MNB) for this study are closely related. 3) Overseas Korean adolescents performed more than in-country Korean adolescents in 5 sub-national characteristics(language, social norm, history of the nation, & breaking with ideological thinking) except the consanguinity, of CNC and MNB. Crisis hypothesis was supposed as alternative factor to explain that overseas Korean adolescents cognified about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feel a sense of belonging more than the in-country respondents. 4) Som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of the respondents, place of birth, level of understanding Korean language, are contributed to acquiring national identity.

I. 머릿말

금세기 들어서 수십년 동안 고착되어 온 분단 상황은 현 세대에서 극복되어야 하는 민족의 과제이다. 우리는 민족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

기 위해 노력해야 할 당위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노력의 첫번째 시도로서 서로의 사고, 즉 인지 체계(認知體系)를 이해하려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 민족으로서 동일 체험이 전혀 없는 젊은 세대들이 민족 통일에 앞서서 한 민족이라는 정체 의식(正體意識)을 가지고 있는

*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조교수

지, 민족정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민족정체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민족정체 의식을 밝히기 위해서는 민족정체 의식을 구체적인 사회심리 현상으로서 간주하여 과학적 분석대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 과학적 분석대상이 되려면, 민족정체 의식은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개념화되어 조작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의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시도로서 한민족(韓民族) 청소년의 민족에 대한 민족정체 의식을 조사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모색은 이론적으로는 민족정체감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적으로는 정체 의식의 실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한 민족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2차 대전 직후 전쟁 발발이 민족의식의 배타성에 있었다는 진단과 더불어 1940, 50년대 역사, 정치학에는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가 붐을 이루었는데, 당시에 논의된 헤이즈(C. Hayes), 카아(E.H. Carr)를 비롯한 역사학과 정치학자들의 논의는 1970년대 이후 한국정치학자들, 역사학자들(차기벽, 1978, 1981)과 사회학자(신용하, 1985)에게 이어졌다. 이들의 논점은 주로 민족주의의 개념 정립과 민족주의에 의한 정치 운동과 역사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아직 민족정체 의식에 대한 연구가 인간의 심리 현상에 기초해서 시도된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연구는 정치학이나 역사학 발달에 의한 민족주의 연구로부터 민족과 민족 의식에 대한 개념의 틀을 이끌어 와야 한다.

이순형(1991)은 민족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으로서 언어, 관습, 규범, 역사와 탈이념성 등을 추출

하였는데, 이 하위 개념을 자아정체와 관련지워 민족집단에 대한 정체의를 명료하고 측정이 가능한 문항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도되어야 한다.

1. 민족정체 의식의 획득

정체감이란 개인의 자아가 그의 인격체계를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질성(同質性)과 연속성(連續性)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동시에 자신의 자아 통합 방법에 있어서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Erikson, 1956)이다.

1980년대 이후에 거론되기 시작한 집단 정체감은 자아정체감과 관련하여 볼 때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정체감을 의미한다. 집단 정체감의 하나인 민족 정체감은 자신이 속해 있는 민족집단의 정체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 체계(이순형, 1991)이다.

자아 정체감은 여러 개의 심리적 특성으로 이루어진 총체적 개념(Dignan, 1965)으로서 동일성(同一性), 고유성(固有性), 자기수용감(自己受容感), 의미있는 타자로부터의 역할기대(役割期待), 지속성(持續性), 목적지향성(目的指向性)과 대인관계(對人關係)와 관련된 7개의 심리 특성으로 규정된다. 개인의 자아 정체감 중의 한 부분인 사회적 정체감에는 민족정체감이 포함된다.

민족정체감은 개인이 속한 민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체 의식인데 이는 그 민족특성에 대한 순수 인지와 소속감 및 애착을 내포하고 있다. 민족 특성에 대한 인지는 자아정체감과 동일한 인지 기제로 획득될 것으로 규정된다(이순형, 1991).

민족정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드문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에 인종정체

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인종 정체는 집단구성원의 인종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자기 동일시, 소속감, 집단구성원에 대한 태도(Phinney, 1990)로 구성된다. 자기 동일시는 일종의 자기 명명화를 의미한다. 자기 동일시는 부모의 인종을 자기의 인종으로 동일시하는가로 측정되는데, 이 과정은 비록 간단하지만 다양한 인종 가운데 특정 인종으로 자기를 동일시하는 인종 정체는 청소년의 자아 개념을 이루는 중요 개념(Hogg, Abrams, & Patel, 1987; Phinney, 1989, 1990; Singh, 1977; Ting-Toomey, 1981)이 된다. 이러한 정체감의 개념 구성의 토대 위에서 민족정체감의 개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된 심리적 특성으로 간주되는 보편성(普遍性)과 특정 민족의 민족정체감을 규정하는 특수성(特殊性)으로 규정된다. 개인의 인지라고 할 때에는 민족정체감의 보편성을 의미하지만, 각각의 민족은 역사, 인종과 친족문화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서 민족정체감의 고유성이 논의될 수 있다.

특히 혈연의식(이광규, 1975)과 한국인의 친족관계로의 심리적 회귀 의식(回歸 意識)은 한국인의 의식 저변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고유한 민족의식이므로 민족 정체감에는 한 조상으로부터 유래된 혈연집단이라는 친족의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정체감은 정체감의 보편적 특성인 심리적 동일성, 독자성, 지속성에 첨가해서 민족의 현존(現存)에 영향을 주었을 역사, 관습, 규범, 탈이념성(脫理念性)과 혈연의식이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한다(이순형, 1991).

특히 탈이념성은 두 이념체계의 정치적 변화나 그의 영향에 관계없다는 항상성을 인지하는 바로서, 탈이념적 민족정체감은 분단상황을 이념적으로 극복한 높은 수준의 정체감으로 평가될 수 있다.

민족정체감의 인지적 특성은 보편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동일성이나 연속성이 보편적 인지 특성인데 비해서 독자성은 각각의 문화집단이 가지는 차별적 인지 특성을 의미한다. 독자성은 개별 민족 문화의 존재에 의의를 부여한다.

또한 민족정체감의 인지적 특성은 동일성, 독자성과 지속성으로 이루어진다. 한 사람의 민족구성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동일성과, 그 동일성이 시간의 경과에도 상관없이 유지되는 연속성을 아는 것임과 동시에 타민족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독자성을 인지하는 것은 민족정체 의식의 인지적 차원이다.

사회현상이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실체로서 인지되는가는 Piaget(1965)와 같은 심리학자들의 관심일 뿐 아니라, 철학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모든 실체와 사상(事象)은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하기 마련이며 이 변화는 시간의 흐름과 관련되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피상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상이나 사회현상이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본질적 동질성을 인지하는 것은 지각의 피상성을 극복한 경우이나 가능한 것이다. 연속성도 동일성과 마찬가지로 인지되는 속성이다. 연속성은 대상이나 사회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실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민족정체감은 특정민족에의 소속감, 민족구성원에 대한 호오(好惡)를 포함하며,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규범(規範), 관습(慣習), 언어(言語) 및 역사(歷史) 등의 문화적 고유성에 대한 인지와 수용감을 내포한다.

민족정체감은 단지 인지적 차원의 특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국애라고 불리워지고 하는 정서를 내포하고 있다. 조국애(祖國愛) 또는 향토애(鄉土愛)는 헤르만 헷세의 페터카멘진트와 같은 문학작품이나, 스메타나의 교향시와

같은 예술작품에서 표현되어지는 정서이다. 한 개인이 자기를 특정 인종이나 민족으로 명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 집단에 심리적으로 소속감을 느끼는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민족정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민족에 대한 명명뿐만 아니라 그 집단에의 소속감도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그 민족집단에 유대감을 느끼는지(Driedger, 1976), 자신의 운명과 미래가 그 집단에 달려 있다고 느끼는지(Der-Karabetian, 1980), 그 집단에 어쩔 수 없이 애착을 느끼는지(Parham & Helms, 1981, 1985)에 대해서 조사한 바를 근거로 하여 개인의 민족소속감이 평가되어야 한다.

개인이 그 민족집단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집단 사람들에게 호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는 또한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이 명명한 민족집단에 대해서 만족감과 자부심과 같은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양가감정, 불만, 열등감과 같은 부정적 태도를 지닐 수도 있다. 자기 민족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타 민족의 문화에 대한 선망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대한 양가감정 등 부정적 민족정체를 형성한 청소년은 성역할, 종교 및 정치현상에서의 정체에 부정적으로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Phinney and Alipuria, 1990)고 한다.

이상의 논의에 입각해 보면, 민족정체감은 일면적이라기 보다는 다면적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민족정체감이 다면적 개념이라고 할 때, 역사, 관습, 규범, 혈연의식, 언어 등 민족만의 문화적 고유성에 입각한 하위 영역을 가진 개념일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인지적 차원으로는 자아 정체와 마찬가지로 동일성, 독자성, 지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의적 차원으로 특정 민족에 소

속감을 느끼고 애착을 가지며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로 구성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민족 정체감은 민족 개념이라는 민족 특성에 대한 인지 차원과 그 민족에 소속감을 느끼고 애착을 느끼는 정의적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상정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두 차원을 측정하는 척도 간에는 어떠한 정도의 상호 관련성이 있을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민족정체감의 인지 차원은 민족의 역사, 관습, 언어, 규범 등의 특성을 인지하는 다면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문제 2. 민족정체감을 구성한 인지 차원을 측정하는 척도와 소속감 차원을 측정하는 척도 사이에 의미있는 상호 관련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3. 본국의 청소년과 국외 거주 청소년의 민족정체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그러한 차이가 있다면, 어느 차원별(인지, 소속감)로 하위 영역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청소년의 연령, 계층, 교향, 종교,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의 배경 변수에 따라서 청소년의 민족정체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433명이다. 국내 거주 청소년 344명과 재외 교포 청소년 89명이다.

조사대상의 51.0%는 남자이고 48.5%는 여자이며, 이들 대상의 연령은 14세에서 26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조사 대상의 87.1%가 고등학생이고 7.2%가 대학생이다.

조사 대상의 국적을 살펴 보면, 한국 국적을 가

진 경우가 381명(88.0%)를 차지하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52명(12.0%)이다. 재외 청소년들의 국적은 남미, 북미, 유럽, 러시아와 중국 등 16개 국에서 온 청소년들로서 한 국가 당 1명으로부터 9명(미국)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남녀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고등학생이 대부분이나 대학교 저학년생까지 연령이 다양하다.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37명이다.

청소년들의 고향을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서울이 고향인 경우가 전체의 296명(68.4%)이고 기타 지방이 113명(26.1%)이다.

대상의 대다수(91%)는 양친이 모두 계시며, 부의 직업은 사업(22.6%), 상업과 서비스(24%), 회사원(21.9%)의 순서로 비율이 높다. 부의 학력을 보면, 대졸 이상인 경우는 208명(48.0%)으로 고졸인 경우(30.5%)나 중졸 이하(4.6%)인 경우에 비하여 더 높다. 모친의 과반수 이상이 58.0%가 전업주부이며, 모가 취업한 경우는 전체 대상의 22.6%이다. 그리고 모의 학력은 고졸(40.9%)인 경우가 가장 많다.

2. 연구도구

민족정체감 과제는 인지 차원을 측정하는 척도와 특정 민족에의 소속감과 애착을 측정하는 척도로 나뉘어 구성된다. 전자는 개인이 속해 있는 민족 집단의 역사, 언어, 관습, 규범, 이념 등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제한된 조사설문으로 역사, 언어, 관습, 규범에 대한 인지가 단순 인지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심리적 차원 중 인지적 특성인 동일성, 독자성, 연속성으로 세분해서 다면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므로 설문 구성이 더 어려운 과제이다.

또한 후자는 다면적 개념(多面的 概念)으로 구

성되어진 민족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인지 뿐 아니라, 정의적 특성인 민족에의 감정적 친숙성과 애착을 측정하는 설문으로 구성된 과제이다.

다면적 개념을 측정하는 일은 논리적 명료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개념간의 관계에서의 형평 유지와 더불어, 그 형평이 설문의 구성에도 유지될 것을 요구한다. 형평 유지란 말할 것도 없이 설문 문항의 수뿐 아니라 문항의 내용을 기술하는 언어 표현에서의 형평까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구조적 설문으로서 2개의 민족정체감의 설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민족 특성 인지 차원의 설문으로서 본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역사에는 여러 차례, 외국의 침략을 받는 등 부끄러운 사실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이 한민족의 역사라고 생각한다. (역사의 동일성 인지)”, “앞으로 남북 분단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우리는 한민족이다(혈연의 지속성인지)”와 같은 문장으로 내용이 기술되었는바, 구체적 문항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민족정체감 구성 문항수

문항 내용	민족정체 구성요소			
	동일성	지속성	독자성	친밀감
역사	1	1	1	1
혈연	1	1	1	1
규범	1	1	1	1
언어	1	1	1	1
관습	1	1	1	1
탈이념	1	1	1	1
합계	24(12)			

이 척도는 아동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4명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해서 문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문항은 제외시켜 4명이 내용이

타당하다고 모두 동의한 문항만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다른 하나의 설문은 민족에의 소속감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서봉연(1991)이 제작한 것이며 이미 동독과 서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바 있어 이는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이 완료된 상태의 척도이다. 이 설문의 구체적 사례는 “국제 운동 경기를 보면, 나는 우리 나라(한국)대표나 선수단의 열렬한 팬이 된다”등으로 민족에 대한 정의적 차원에서 소속감과 애착을 표현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척도이다.

3. 조사 절차

1991년도 서울에서 열린 『한민족체전』에 참가한 재외 교포 청소년 500여명 중에 우리말을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 103명을 찾아 그들의 숙소인 올림픽 유스호스텔에 가서 면접조사하였다. 응답지를 살펴 보니, 조사대상 중에는 설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상당 수 있었으므로

그들을 제외시킨 후에, 나머지 89명의 설문 내용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집단에 비교집단으로는 서울의 강북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동일한 연령대의 청소년을 조사하였다.

4. 분석 방법

두 개의 민족정체감 설문을 각각 조사하여 재외청소년과 한국청소년의 민족정체감의 특성을 빈도분포를 통해서 알아보고, 두 지역 청소년의 민족정체감을 설문 내용별로 상관정도를 통해서 일치성 정도를 분석하고, 청소년의 인구배경적 변수에 따른 두 집단간 차이를 차이 검증을 통해서 밝혀본다.

IV. 연구 결과의 해석

본 연구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제시한다.

(1) 첫번째 연구문제는 민족정체감 개념이 다

〈표 2〉 민족정체감 인지 차원의 점수의 분포

내 용	평 균	표준편차	최 소 값	최대값(범위)	사 례 수
민족특성인지	88.49	10.76	51.00	113.00(24-120)	408
역 사	13.67	2.40	5.00	20.00	425
관 습	14.49	2.63	6.00	20.00	426
규 범	14.68	2.62	7.00	20.00	428
혈연의식	15.98	2.65	7.00	20.00	426
언 어	14.15	2.83	4.00	20.00	427
탈이념성	15.40	3.15	4.00	20.00	427
동 일 성	23.75	3.43	12.00	30.00	427
독 자 성	21.91	3.42	8.00	29.00	424
지 속 성	21.25	3.74	7.00	30.00	425
친 밀 성	21.46	4.13	7.00	30.00	422
민족애착감	43.54	7.22	18.00	60.00(12-60)	425

면성에 대한 인지를 알아 보는 것이었다. 이 연구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인지한 민족 정체감의 하위 영역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 보았다. 6개의 하위영역별로 점수의 분포를 살펴 볼 때, 역사, 관습, 규범, 혈연, 언어, 탈이념성 등의 점수가 고르게 분포되고 그 어느 영역의 내용도 빠짐없이 나타나, 결국 민족정체감이 다면적으로 구성된 인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민족 정체감의 인지 척도인 민족특성 인지 척도의 하위 영역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6개의 하위 영역간 상관은 아주 높게 나타났으나, 자료의 중다공선성을 의심할 정도로 높은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상관관계 표를 통해서 과제가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관련된 과제를 통해서 민족정체감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3〉 민족정체감의 하위영역별 상관

	관 습	규 범	혈연의식	언 어	탈이념성
역 사	.29***	.17***	.24***	.28***	.27***
관 습		.40***	.29***	.43***	.32***
규 범			.34***	.26***	.22***
혈연의식				.44***	.39***
언 어					.36***
탈이념성					

*** p<.001

흥미로운 것은 민족 특성의 인지 과제의 하위 영역별 관련성이다. 6개 영역의 점수 간에는 모두 높은 상관이 나타나서 각 영역 사이에 개념적 밀접성이 확인된 셈이다.

그런데 민족정체감을 구성한 3개의 하위 차원, 즉 독자성, 지속성과 친밀성 차원에도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서 정체감 인지의 하위 차원 간에도 높은 상호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표 4〉 민족정체감의 하위 차원간 상관

	독 자 성	지 속 성	친 밀 성
동 일 성	.33***	.43***	.56***
독 자 성		.20***	.32***
지 속 성			.42***

*** p<.001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족정체감은 다면적 개념으로서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여러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하위 영역의 개념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2) 두번째 연구문제는 인지를 나타내는 민족 정체감 인지 차원의 측정 척도와 소속과 애착감을 측정하는 민족정체감 척도간에 상관성을 논의해 보는 것이었다. 민족정체감 척도 1의 평균이 중앙값보다 높으며, 민족정체감 척도 2에 의한 민족 소속감의 평균도 중앙값보다 높다. 두 척도가 측정한 점수의 분포가 고르다.

두 척도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민족정체감 인지척도와 소속감 척도간 관계를 살펴 보았

을 때, 두 척도는 유의한 상관관계($r=.59, p<.001$)를 나타내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민족의 특성에 대한 인지와 그것으로 표상되는 민족의 소속감과 애착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민족정체감이 그를 구성하는 인지와 정서 요인이 내포된 개념체임을 밝혀 준다고 보겠다.

(3) 세번째 연구문제는 국내 청소년과 재외 교포청소년의 민족정체감의 차이를 살펴 보는 것이었다. 청소년의 민족정체감 인지가 청소년의 인구, 배경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청소년의 민족 특성 인지는 응답자의 국적($F=18.65, p<.0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적이 외국인 교포 청소년이 국내의 청소년보다 민족의 특성 인지가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민족 특성의 하위 영역인 '역사'(F=7.24, $p<.01$), 관습(F=36.59, $p<.0001$), '사회규범'(F=4.48, $p<.05$), '언어'(F=16.14, $p<.0001$), '탈이념성'(F=4.07, $p<.05$)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외국 국적인 청소년이 한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에 비해서 민족의 역사, 관습, 사회규범, 언어 및 탈이념성 등의 민족 특성에 대한 인지가 더 높다. 그러나, 혈연의식에 있어서는 국적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이 민족의 특성에 대한 인지뿐 아니라, 그들이 느끼고 있는 민족애착감도 청소년의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민족애착감은 국적($F=19.03, p<.0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적이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인 청소년에 비하여 민족애착감이 더 높았다.

이처럼 국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보다 민족특성에 대한 인지도 뛰어 날 뿐 아니라, 애착감도 두드러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외국에서

의 생활이 오히려 정체 의식에 위기를 느끼게 하여 자신의 국적과 더불어 민족에 대한 정체 의식과 소속감을 돈독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듯하다. 타민족과의 이질적 문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뿌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민족특성의 다른 하위 영역별 인지와 비교되는 혈연의식의 상대적 약화이다. 이는 애정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민족과의 결혼 등으로 연유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점을 가지는데, 조사 대상의 표집 과정에서의 편집성의 가능성이 그러하다. 한민족 체전에 참여를 하였다든 점에서 그러하고, 한글을 해독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부모들이 민족 의식을 견고하게 하는 특별한 교육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배경변수에 따른 민족정체의 인지와 애착 차원 분석

네번째 연구문제는 응답자의 배경 변수별로 민족정체감 인지와 애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다. 청소년의 민족 특성 인지가 청소년의 인구 배경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청소년의 민족 특성 인지는 응답자의 연령($F=6.93, p<.0001$), 학년($F=7.99, p<.01$), 고향($F=8.02, p<.01$)과 한글 이해 정도($F=11.40, p<.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의 민족특성 인지는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연령이 16세 이후와 그 이전에는 청소년의 민족정체감 인지에 차이를 나타낸다. 연령이 높을수록 민족정체감의 인지 차원의 점수가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16세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민족정체 의식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분석결과를 통해서 고등학교 시기 중 17세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 그 이전인 중학교 시기와 달리 발달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한글 이해 정도에 따라서는 한글을 이해하는 수준이 높은 경우에 민족 특성에 대한 인지가 더 높았다. 한글을 이해하고 잘 표현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한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보다 민족 특성 인지가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민족정체감과 한글 이해도 간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 결과의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하다. 즉, 민족정체감이 뚜렷한 청소년이 한글을 잘 배워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지 아니면, 한글 이해도와 한글 과제 수행간의 차이인지, 한글로 쓰여진 설문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외에 청소년의 성별, 부모의 학력, 가정의 계층과 종교에 따라서는 민족 특성 인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 청소년의 인구 배경 변수별 민족 특성 인지 민족정체감의 하위 영역별 인지에 가족의 배경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① 역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족정체감의 하위 영역인 '역사'에 대한 인지는 연령($F=5.04, p<.01$), 학년($F=7.57, p<.01$), 고향($F=6.64, p<.05$), 종교($F=2.75, p<.05$)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이 17세 이상인 집단은 그 이전의 집단보다 민족정체감이 유의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대학생 집단보다 민족정체감 인지 수행이 더 높다. 또한 고향이 지방인 청소년은 고향이 서울인 청소년보다 민족정체감의 역사 영역에서의 인지 점수가 더 높다.

청소년의 민족정체감이 청소년의 종교에 따라 서로 차이를 나타내는데, 무교인 청소년의 역사

영역의 정체감 점수가 다른 종교를 가진 청소년에 비하여 더 높으며, 천주교 신자인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 비하여 역사 영역에서의 정체감 점수가 더 낮다.

그리고 성별, 부모의 학력, 한글 이해도와 가족의 계층에 따라서 청소년의 민족정체감의 '역사'영역에서의 인지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② 관습

민족정체감의 하위영역 중 '관습'에 대한 인지에는 청소년의 연령($F=8.26, p<.001$), 학년($F=9.80, p<.01$), 과 한글 이해 정도($F=5.65, p<.05$)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이 17세 이후의 집단과 그 이전의 집단간 관습 인지 점수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고등학생 보다는 대학생이 관습 영역의 인지 점수가 더 높다. 또한 이 영역의 인지 점수는 청소년의 한글 이해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한글 이해도가 높은 청소년 집단이 낮은 청소년 집단에 비해서 관습 영역의 점수가 더 높다.

③ 규범

민족정체감의 하위영역 중 '사회규범'에 대한 정체의식에서 청소년의 연령($F=5.09, p<.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이 16, 17세를 기점으로 하여 두 집단간 규범 인지의 차이를 나타낸다. 즉 17세 이후의 청소년이 그 이전의 집단보다 민족정체감의 하위영역인 규범에 대한 인지 점수가 더 높다.

④ 혈연의식

민족정체감의 하위영역 중 '혈연의식'에 대한 인지에서 청소년의 연령($F=4.35, p<.05$), 한글 이해도($F=3.98, p<.05$)와 계층($F=2.90, p<.05$)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이 17세 이후인 집단의 경우에 그 이전의 집단보다 혈연의식 범위에서 인지 점수가 높다. 한글이해 정도가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혈연의식

영역에서의 인지 점수가 더 높다. 또한 이 영역에서의 인지 점수에 계층간 차이가 존재한다. 즉, 계층이 중하인 경우에 청소년이 혈연에 대한 인지 점수가 가장 높고, 계층이 하인 경우에 가장 낮다.

⑤ 언어

민족정체감의 하위영역 중 '언어'에 대한 인지에는 청소년의 성별($F=4.21, p<.05$), 학년($F=10.98, p<.001$), 한글 이해도($F=7.67, p<.01$), 계층($F=3.64, p<.05$)과 종교($F=2.64, p<.05$)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민족정체의 언어 영역에서의 인지에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과계 수행 점수가 더 높다. 그리고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이 언어에 대한 정체 인지 점수가 더 높다.

또한 한글 이해 정도에 따라서도 민족정체의 하위 영역인 언어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가 다르다. 즉, 한글 이해 정도가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언어 영역에서의 인지점수가 더 높다.

그리고 계층에 따라서도 언어에 대한 인지가 다르다. 즉, 가정의 사회계층이 중상인 청소년이 다른 계층의 청소년에 비해 언어 영역에서의 인지 점수가 더 높으며, 역으로 계층이 낮은 청소년이 다른 계층의 청소년에 비하여 언어 영역의 점수가 더 낮다.

흥미로운 점은 종교에 따라서 청소년의 민족정체 의식이 다른 점인데, 언어 영역에서의 민족정체 인지는 천주교, 무교, 불교, 기독교의 순서로 점수가 더 높다.

⑥ 탈이념성

민족정체감의 하위 영역 중 '탈이념성'에 대한 인지에서 청소년의 성별($F=7.49, p<.01$), 고향($F=10.09, p<.01$)과 한글 이해 정도($F=11.61, p<.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탈이념성 영역의 점수가 더

높다. 또한 고향이 지방인 청소년은 서울이 고향인 청소년에 비하여 탈이념성 영역의 점수가 더 높다. 탈이념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는 한글 이해도에 따라서 다르다. 즉, 한글 이해 정도가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탈이념성 영역의 점수가 더 높다.

본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하나는 민족정체감 측정 도구의 구성상의 의의를 말하며, 다른 하나는 청소년의 민족정체 의식의 실재를 밝혀준 점에서의 의의를 지닌다. 우선, 본연구 결과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민족정체감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었다. 민족정체감을 측정하는 도구의 하위 영역의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높은 상호관련성은 이 도구가 밀접한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주나, 그 상관성 자체가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어 구성된 것이 아님을 입증해 주었다.

다른 하나는 한민족 청소년들이 어디에 거주하든지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민족 정체감을 밝혔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의 고향, 국적, 한글 이해도 등이 민족 정체 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기능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이다.

2) 배경변수에 따르는 민족애착감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민족애착감이 청소년의 배경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민족 애착감은 연령($F=5.67, p<.01$), 학년($F=12.47, p<.001$)과 계층($F=3.95, p<.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 민족에 대한 애착감에 차이가 있는데, 20세 이전과 이후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는데, 20세 이후에 민족에 대한 애착감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의 민족정체감 점수가 더 높았다. 가족이 속한 계층에 따라서 민족 애착감에 차이가 있는

데, 하류 계층의 청소년이 다른 계층의 청소년에 비해서 민족 정체감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V. 맺는 말

본 연구는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국외에서도 민족정체감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되었다. 역사, 정치 학자들의 민족과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이끌어낸 개념들(이순형, 1991)을 문항으로 구체화하여 국내 청소년들과 ‘한민족 체전’에 참여한 재외 교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민족 정체감의 형성을 조사하고 비교하였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청소년들의 민족정체감은 다면적 개념으로서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하위 영역별 인지 측면과 애착 차원으로 구성된다. 민족 특성의 하위 영역이란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역사, 관습, 규범, 혈연의식, 언어 등의 개념들이다. 인지 차원이란 동일성, 독자성, 지속성과 친밀성의 차원이다. 그런데 민족정체감의 하위 영역간에는 서로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중다공선성을 가정할 정도는 아니면서 각 영역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인지적 차원 사이에도 상관성이 높아서 세 차원이 비슷한 인지 능력을 나타낸다.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연구자가 다르고 도구의 구성 내용이 다를 때, 두 척도가 서로 동일한 현상을 동일한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겠는가는 관심이 가는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두 개의 민족 정체감 척도는 이와같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과제였다. 민족 특성에 대한 인지 측면과 애착 측면을 측정하는 척도 사이에 적절히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두 척도의 타당성을 입증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외국 국적을 가진 교포 청소년이 한국 청소년들에 비해서 민족 정체를 구성한 6가지 하위 영역에 대한 인지에서 ‘혈연’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영역, 역사, 규범, 관습, 언어, 탈이념성의 영역에서의 점수가 높다. 외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들은 이질 민족간의 결혼에 익숙해 있으므로 혈연의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들이 한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들에 비해서 민족 정체 의식이 높은데, 그 이유는 외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청소년들에게 민족 정체 의식을 느끼게 하고 그러한 위기 의식이 민족정체를 확립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위기 가설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에게는 역으로 민족정체를 형성할 계기가 부재하다는 사실로 이어질 수 있다.

위기 가설의 설명 가능성은 계층변수가 고향 변수보다도 설명력이 작다는 사실만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즉, 청소년의 인지나 사회인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계층 변수(이순형, 신양재, 김영주, 1991)가 청소년이 민족정체감의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 비해서, 고향 변수는 청소년이 민족정체감을 달리 형성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 가설의 설명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이 현상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응답자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실시한 한민족 체전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것이다. 비록 한국정부에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분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다른 재외 교포 청소년들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은 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된다.

세째, 청소년들의 민족특성 인지와 애착은 청

소년의 인구 배경 변수들에 따라서 다르다. 우선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서 민족정체가 다르다. 17세 미만인 집단과 그 이상인 청소년 집단 사이에 민족정체감이 달리 형성되어 있는데, 어느 한 과정의 하위 영역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 일관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보면, 17세가 민족정체감의 형성에 전환을 이루는 시기인 듯하다. 그러나, 민족 애착감은 20세를 기점으로 다른데, 20세 이후의 청소년들이 그 이전의 청소년들보다 민족 애착감이 더 높다.

청소년의 고향에 따라서 청소년의 민족 정체감이 다르다. 고향이 서울이 아닌 청소년들은 고향이 서울인 청소년들보다 민족 특성을 더 높게 인지하고 더 애착을 가지고 있다. 대도시에서의 생활이 민족에 대한 정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큰 자극이 되지 않는 듯하다. 대도시 생활이 청소년들에게 소시민적 관심을 갖도록 제한시키고 마는 듯하다.

끝으로 한글의 이해 정도가 청소년의 민족정체감 형성과 관련되고 있다. 한글을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청소년들인 경우에 한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보다 민족정체 의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민족정체 의식이 강한 청소년이 한글을 배웠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한글로 씌여진 설문지의 이해 정도가 사실상의 허구적 관계를 상관관계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민족정체감 측정 도구의 구성상의 의의를 말하며, 다른 하나는 청소년의 민족정체 의식의 실재를 밝혔다는 의의를 지닌다. 다면적 개념의 민족정체감을 측정하는 도구가 여러 개의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측정 도구가 밀접한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었음과 동시에 구성 내용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 내용의 척도가 실

제 측정치로 살펴본 자료상으로도 무리없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의의는 한민족 청소년들이 어디에 거주하든지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민족 정체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민족정체감을 획득하는 결정적 시기는 17세 내지 20세의 청년기라는 점을 밝혔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이 고향, 국적, 한글 이해도 등의 생활과 관련된 변수들이 청소년의 민족정체 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기능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이다.

참 고 문 헌

- 백낙청 역음. (1982).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 창작과 비평사.
- 서봉연. (1991). 동독과정에 있어서의 동서독 청소년의 정체감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미 발표 논문.
- 신용하. (1985). 민족 형성의 이론. 신용하 편 민족이론,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3-58.
- 이광규. (197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 일지사
- 이순형. (1984). 한국 아동의 친척명 인지. 한국 아동학회지, 5권, 21045.
- 이순형. (1989). 종가의 종손, 종부의 사회화 과정 고찰 : 종손, 종부의 양육사를 중심으로. 생활과학 연구, 15, 39-47.
- 이순형. (1991). 민족정체감의 개념화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4호, 139-152.
- 이순형, 신양재, 김영주. (1991). 빈곤 가정 아동의 환경지각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제12권, 1호, 113-128.
- 차기벽. (1978).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서울 : 까치.

- 차기벽 역. (1981). 민족주의 : 이념과 역사. 서울 : 한길사
- Baumeister, R. F. (1986). Identity: Cultural change and struggle for self. N. Y.: Oxford University Press.
- Caltabiano, N. (1984). Perceived differences in ethnic behavior: A pilot study of Italo-Australian Canberra residents. Psychological Reports, 55, 867-873.
- Carr, E. H. (1945). Nationalism and after. London: Macmillan.
- Dignan,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Youth and Social Psychology, 1, 476-483.
- Dignan,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 No. 5, 476-483.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 Y.: Norton.
-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age identity. Journal of American Psychologist, Assoc. 4, 56-122.
- Greenwald, A. G. & Pratkanis, A. R. (1984). The Self. In R. S. Wye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Vol. 3, pp. 129-178). Hillsdale, NJ: Erlbaum.
- Haward, J. W. & Rothbart, M. (1980). Social Categorization and memory for in-group and out-group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301-310.
- Hayes, C. J. H. (1959). Nationalism.
- Hinkle, S. & Schopler, J. (1986). Bias in the evaluation of in-group and out-group performance. In S. Worchel & W.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Chicago: Nelson-Hall.
- Hogg, M., Abrams, D., & Patel, Y. (1987). Ethnic identity, self-esteem, and occupational aspirations of Indian and Anglo-Saxon British adolescents.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3, 487-508.
- Hymes, R. W. (1986). Political attitudes as social categories. A new look at selective mem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233-241.
- Jones, E. E., Wood, G. C. & Quattrone, G. A. (1981). Perceived variability of personal characteristics in in-groups and out-groups: The role of knowledge and evalu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523-528.
- Josselson, R. (1980). Ego development in adolescence. In Joseph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 Y.: John Wiley & Sons.
- Kohn, H. (1944). The idea of nationalism: A study in its origins and background. N. Y.: Macmillan.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oseph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 Y.: John Wiley & Sons.
- McGrath, J. (1984). Groups: Interaction and performa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oreland, R. (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assimilation of 'new' group members.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173-1190.
- Myers, D. G. (1982). Polarizing effects of social interaction. In H. Brandstatter, J. H. Davis & G. Stocker-Kreichgauer (Eds.), Group decision process. London: Academic Press.
- Oerter, R. (1991). Subject's conception of human nature: A cross cultural comparison. In press.
- Phinney, J. (1989). Stages of ethnic identity in minority group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ts, 9, 34-49.
- Phinney, J.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8, No. 3, 499-514.
- Podd, M. H. (1980). Ego identity status, formal operations, and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34-49.
- Phinney, J.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8, No. 3, 499-514.
- Podd, M. H. (1980). Ego identity status, formal operations, and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87-99.
- Quattrone, G. A. (1986). On the perception of a group's variability.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 25-48). Chicago: Nelson-Hall.
- Shaw, M. (1981). Group dynamics: The psychology of small group behavior. (3rd ed.). N. Y.: McGraw-Hill.
- Simic, A. (1987). Ethnicity as a career for the elderly: The Serbian-American cas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6, 113-126.
- Singh, V. (1977). Som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problems in the study of ethnic identi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Annals, 285, 32-42.
-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ng-Toomey, S. (1981). Ethnic identity and close friendship in Chinese-American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5, 383-406.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the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zuriel, D. and Klein, M. M. (1977) Egoidentity: Effects of ethnocentrism, ethnic groups. Psychological Reports, 40, 1099-1110.
- Vogel, S. R. (1979). The currents comments symposium: Applications of androgyny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psychotherap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 255-258.
- White, R. K. (1966). Misperception as a cause of two world wars. Journal of Social Issues, 22, 1-9.
- Worchel, S., Cooper, J., & Goethals, G. R. (1989). Understanding social psychology.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Zander, A. (1982). Making groups effective. San Francisco: Jossey-Bass.